

◎ 濟州島研究, 제 4 칡, 1987. ◎

濟州島 陸上植物의 研究와 장래의 문제 ——分類 및 植生研究를 中心으로 ——

金 文 洪*

I. 序

濟州島는 식물의 보고라고 하여 이제까지 알려진 自生植物이 약 1,800여 종류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 보다 면적이 넓은 설악산이 950종류, 지리산이 820종류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것이다. 이렇게 自生植物의 종류가 많은 것은 제주도의 경우 暖帶, 溫帶 및 寒帶性의 식물들이 高度別로 層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韓半島, 日本, 中國과의 사이에 位置한 섬이라는 地理的 영향도 큰 것으로 보아진다.

제주도 自生植物의 分布上의 유연관계는, 韓半島에 없고 제주에만 있는種이 23%, 제주와 韓半島의 共通分子인 溫帶性 植物이 43%, 제주와 韓半島 南部의 共通種인 暖帶性 分子가 14%, 中部 이하에만 分布하는 種이 8%, 北韓의 高地帶와 共通種인 寒帶性 植物이 2%로 나타나고 있다.

II. 研究略史

濟州의 植物에 대한 연구는 1905年 日人 市川三喜가 動物採集차 제주에 와서 채집한 62種의 植物이 中井에 의해 감정됨으로써 알려졌다. 1906年부터는 서홍리에 주재하던 Taquet神父가 日本 青森에 주재하던 Faurie神父의

* 濟州大學校 生物學科 教授

協力하에 수만점의 표본을 채집하여 유럽各國의 박물관에 매각하거나 기증하였으며 이 표본들은 英國의 Hooker, Bennet, 독일의 Künkenthal, Schneider, 블란서의 Léveillé, Vaniot, 스위스의 Christ, 오스트리아의 Hackel 등에 의해 연구되었고 이들에 의해 36種의 新種이 發表되었다. 1911年에는 石戶谷勉(당시 조선총독부 산림과)에 의해 500여種, 森爲三(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下郡山城(당시 李王家 博物館) 등이 채집한 500여종을 中井가 감정하여 23種의 新種을 發表하였다.

中井는 여러 사람의 채집한 표본과 Faurie神父의 표본을 보고 1913年濟州에 와서 Taquet神父의 표본을 감정한 후 약 1個月間 조사를 하여濟州島의植物은 1,433種類이고 특산식물은 78種 69變種으로 發表하였다(中井, 1913).

1918年에는 美國의 Arnold植物園의 E.H. Wilson이 渡來하여 구상나무를 新種으로 發表하였다(Wilson, 1920), 1928年에는 濟州島 夏季大學이 개최되어 많은 生物學 教員들이 조사를 하였다 同年 森는濟州島의 高度別 分布論을 發表하였다. 1928年 이후의 本道 植物에 대한 報告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후 해방이 되어 1956年 李永魯 등에 의해 비양도의 植物相이 보고될 때까지 약 30年間은 濟州道 植物 研究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다.

1957年 李德鳳에 의해 그 당시까지 부분적으로 조사되었던 자료를 정리하여濟州의植物을 1,482종류라고 報告하였다. 이 후 제주도의植物相에 대한 연구는 洪淳佑(1962), 韓相烈(1964, 1965), 夫宗休(1964), 李愚詰(1965), 朴萬奎(1965)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夫宗休는濟州出身으로서 우리나라植物分類學界에 크게 공헌한 바 있으며, 많은 韓國未記錄植物을 報告하였다.

1968年에는 文化公報部의 주관으로 한라산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때 植物分野는 吳桂七, 朴萬奎, 李永魯, 陸昌洙, 安鶴洙 등이 여러 분야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이때 알려진 管束植物은 양치식물 200종류, 단자엽식물 351종류, 나자식물 18종류, 쌍자엽식물 1,240종류 등 모두 1,809종류로서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많은 재배식물이 포함되어 있다.

1969년에는 충자군도의 종합조사가 실시되었고 吳相哲(1974, 1975, 1976)

都象學 등(1975), 吳現道 등(1978), 金文洪 등(1979, 1980), 金昌玟 등(1979)에 의한 植物相이나 分類學的 연구가 수행되었다.

1985年에는 제주도에 의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때 李昌福(1985)은 제주의 특산식물을 74종류로 보고하였고 金文洪(1985)은 제주도의 자생식물로서 158科 663屬 1,453種 275變種 2亞種 65品種으로서 모두 1,795종류라고 밝혔다.

濟州道 식물의 高度別 수직 분포는 타 지역에 비하여 뚜렷이 구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分布論的 研究는 中井(1913), 森(1928), 吳桂七(1968), 車鍾煥(1969), 張楠基(1973) 등에 의해 보고된 바 있으나 각각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같은 地域에 대한 조사에서 見解를 달리하는 이유로서는 조사지역이 단편적이고 조사코스를 달리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植物群落의 分析이나 해석에 대한 研究는 朴奉奎(1968, 1969), 朴行信等(1977), 李宗錫(1979), 大場(1979), 金文洪(1981, 1985), 宋鍾碩(1985) 등에 의하여 보고된 바 있다. 특히 1980年 이후에는 植物社會學의 植物群落의 分類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제주도의 군락구조를 分析하고 있다.

■. 장래의 문제

1) 濟州道의 自生植物의 종류는 매년 미기록식물이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학자들의 참여로서 연구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自生植物이 밝혀지리라 본다.

2) 제주의 特產植物은 中井가 78종 69변종으로 발표하였고 李德鳳은 31종 2변종으로, 李昌福은 74종류로 보고하는 등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특산식물에 대한 연구가 구라파나 일본을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Type specimen을 볼 수 없다는 애로가 있으나 이는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야 할 과제로 보아진다.

3) 지금까지의 植生研究는 단편적인 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권으로 하는 종합적인 植生學的 조사와 더불어 現存植生圖 및 잠

재자연식생도 등이 제작되어 제주도의 開發이나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車鍾煥, 1969, 한라산 식물의 수직분포, 식물학회지 13(1).
- 張楠基外2人, 1973, 한라산 삼림군락의 식물사회학적 분석, 연구논총 3.
- 崔斗文, 1969, 제주도 만장굴의 식물상, 공주사대논문집 7.
- _____, 1982, 한라산 백록담 주변의 식생연구, 성신여대논문집 20.
- 都象學外2人, 1975, 백록담 화구내의 식물분포조사 연구, 동대논총 5.
- 韓昌烈, 1964, 한라산 자생 왕벚 및 추정 양천에 관하여, 식물학회지 7(2).
- 洪元植, 1957, 제주도의 식물군락 연구. 성신대의 학부 논문집. 1.
- 金昌玟外3人, 1979, 제주도 재래감굴의 식물학적 연구(1), 한국생약학회지 10(1).
- 金文洪. 許仁玉, 1979, 제주도 재래감굴의 식물학적 연구(4), 제대논문집 10.
- _____. 金京植, 1980, 제주도 주요 부속도서의 식물상, 제대논문집. 11.
- _____. 吳現道, 1981, 천제연 계곡의 식물상 연구, 제대논문집. 12.
- _____. 南正憲, 1985, 한라산 구상나무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 _____. 1985, 한라산의 관속식물상,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 金贊秀. 金文洪, 1985, 한라산 아고산대 초원 및 관목림의 식물사회학적연구.
- 李昌福. 1985, 제주도의 특산 및 희귀식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 李宗錫. 1979, 한라산 표고에 따른 몇가지 수종의 생장상태에 관하여, 제대논문집 9.
- 李德鳳, 1957, 제주도의 식물상, 고대문리논집 2.
- 李愚詰. 陸昌洙, 1965, 제주도의 약품자원식물, 한국약사회지 6(2).
- 森爲三, 1928, 濟州島所生植物分布について. 文教の朝鮮, 38.
- 文化公報部, 1968, 한라산 및 홍도.
- 文化財管理局, 1969, 추자군도의 식상.
- 中井猛之進, 1913, 濟州島並莞島植物調査報告書.
- 吳現道·金文洪, 1978, 제주도 식물에 관한 연구(1); 수목의 수직분포에 대하여, 제대논문집 9.
- 吳相哲, 1974, 제주도 수생식물 조사보고, 제주교대논문집 4.
- _____. 1975, 제주도 상록활엽수의 재검토와 제주도내 지역별 분포, 제주교대논문집 5.

- _____, 1976, 제주도 상록활엽수의 분포조사, 제주교대논문집 6.
- 大場達文, 1979, 濟州島の海岸植生, 植物地理分類研究 27(1).
- 朴行信外3人, 1978, 한라산 배록담 분화구내의 생태계에 관한 연구(1), 제대논문집 9.
- 朴萬奎, 1965, 한국 왕벚나무의 조사연구사, 식물학회지 8(1~2).
- 朴奉奎, 1969, 제주도 성산포 해안의 사구식물의 구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논총 3.
- 夫宗休, 1964, 제주도산 자생식물 목록, 한국약사회지 5(2).
- 宋鑑碩·中西哲, 1985, 韓國濟州島漢拏山の亞高山針葉樹林の研究, 日生態學會誌 35.
- Wilson, E.H., 1920, Four new conifers from Korea J. Arn. Arb. 1.
- 自然保護中央協議會, 1986, 자연실태종합조사보고서 제 5집, 추자군도.